

女性研究

The Women's Studies

2015. Vol. 88 No.1 pp. 491~541

##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 여성과 남성의 차이

장상수



##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 여성과 남성의 차이\*

장상수\*\*

### 초 록

이 글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을 다룬 국내외 경험 연구를 개관하였다. 사회이동 연구는 여러 가지 세부 주제로 나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두 연구 주제, 즉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수익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와 여성 교육의 수익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다시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학력성취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교육의 수익은 직업 수익과 화폐 수익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 글은 한국의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수익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였거니와 시계열 변화 방향도 알아보았다. 이런 비교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학업성적이든 학력성취든 교육기회의 균등성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둘째, 교육의 직업 수익과 화폐 수익, 그리고 여성의 혼인 수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주제어 : 교육기회의 불평등, 교육의 수익, 학업성적의 불평등, 학력성취의 불평등, 교육의 직업 수익, 교육의 임금 수익, 여성 교육의 혼인 수익

### I. 머리말

사회이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오랜 관심사였다. 한국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일찌감치 시작하였으나(이상백·김채운, 1966), 여러 가지 이유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기를 띠었다(홍두승, 1980; 차중천, 1987).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하였던 것은 아무래도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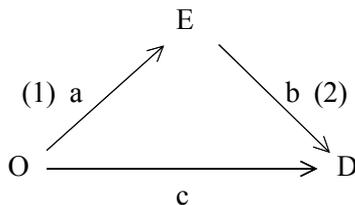
\* 이 글을 쓸 때 2014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지원한 연구비의 도움을 받았다.

\*\*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대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생산된 대규모 조사 자료는 연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사회과학협회회는 1990년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Inequality and Inequity in Korea; KII)’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은 1998년에 “한국의 노동과 소득 패널 연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생산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여러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단위의 횡단면 자료나 패널 자료를 생산하였다. 이런 자료는 이 분야 연구를 크게 활성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을 다루었던 국내외의 경험 연구를 개관한다. 그렇다면 사회이동 관련 연구란 어떤 것인가? 오늘날 사회이동 연구는 주로 기회 균등(the equality of opportunity)을 다룬다(Blau, 1992). 여기서 기회 균등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한다.

서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경험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였지만(cf. Goldthorpe, 1987; Kurz and Müller, 1987; Ganzeboom et al., 1991), 본격적인 연구는 아무래도 블라우와 던컨이 기념비적 저작(Blau and Duncan, 1967)을 출간한 이후부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계층화 과정의 기본모형(the basic model of stratification process)을 제출하였는데, 이 모형을 단순화하면 [그림 1]과 같은 인과연쇄로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 O(Origin)는 부모의 계급이나 직업 지위를, E는 자녀의 교육수준(Education)을, D(Destination)는 자녀의 계급이나 직업 지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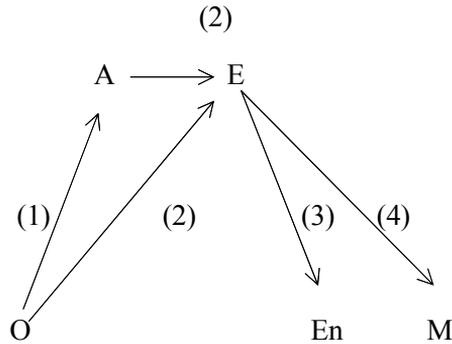


[그림 1] 지위획득 모형

계층화 과정의 기본모형은 이후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으로 확대되었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은 지위획득모형에 예전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모형이 쓸모없는 유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위획득모형은 이동 연구의 의제(agenda)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앞의 [그림 1]로 짐작할 수 있듯, 오늘날 이동 연구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즉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과정이다(O-E 과정). 둘째, 학력이 직업 지위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직업 수익을 알아보는 과정이다(E-D 과정). 셋째,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 획득에 미치는 영향, 즉 직업(계급)이동을 보는 과정이다(O-D 과정). 이 세 주제가 기회 균등의 주요 측면이다.

이처럼 이동 연구의 큰 주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쌓이면서 당연하게도 이 주제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 방향으로 분화하였다(Hout and DiPrete, 2006). 그러나 한국의 이동연구를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 글에서는 이런 분화를 일일이 추적하지 않고 [그림 1]의 큰 틀을 중심으로 앞선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림 1]의 경로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하거나 수정한 [그림 2]의 경로를 살피기로 한다(여기서 O(Origin)는 부모의 계급이나 직업 지위를, A는 학업성적(Academic Achievement)를, E는 자녀의 학력(Education)을, En은 응답자의 첫 직업(Entry Job)을, M은 화폐 수익(Monetary Returns)을 나타낸다).<sup>1)</sup>

1) 연구 주제를 바꾼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학력성취의 불평등이 별개의 주제이기 때문이었다. 둘째, 교육의 화폐 수익은 교육의 직업 수익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추가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직업을 계층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지만, 계층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역시 소득이나 재산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직업 수익에 더하여 화폐 수익에 관한 연구도 개관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판단하였다. 셋째, 계급재생산 경로를 논의에서 배제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1980-90년대에 큰 주목을 받았으나(Erikson and Goldthorpe, 1992; Breen, 2005),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구자도 과거에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으나(김병성 외, 1982; 신광영, 1994; 장상수, 1998; Park, 2004; 이혜영 외, 2006; 박병영 외, 2010), 지금은 더 이상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림 2] 이 글의 관심 경로

[그림 2]의 개별 경로는 오늘날 이동 연구의 중요 주제다. (1) 과정은 학업 성적(academic achievement)의 불평등을 다루고, (2) 과정은 학력성취의 불평등을 본다. (3) 과정은 교육의 직업 수익을 살피고, (4) 과정은 교육의 화폐 수익을 추정한다. 이 네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묶을 수 있다. (1)과 (2) 과정이 한 묶음이고, (3)과 (4) 과정이 다른 묶음이다. 전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다루는 과정이고, 후자는 교육의 수익을 살피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수익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 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 기회 불평등과 교육 수익을 모두 살펴볼 것이지만, 여성의 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 글이 서술하려는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정리하면,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교육 수익을 다룰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 이 연구 대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말해 보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 수익에 관한 연구는 그 출발부터 비교 연구였다. 이동 연구는 사회와 사회를 횡단면적으로 비교하는 인류학적 비교든지, 한 사회에서 시기와 시기를 비교하는 역사적 비교든지 비교를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다. 한국의 연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의 연구사를 살피는 이 글에서도 이런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시기와 자료를 달리 하는 여러 연구의 경험적 발견을 토대로, 이 글은 한국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나 교육 수익이 타국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요약하고,

그 불평등이나 수익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네 개의 절로 나뉜다. 두 번째 절에서는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학력성취의 불평등을 다룬다. 다시 말해 이 절에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사를 개관한다. 세 번째 절에서는 교육의 수익을 다룬다. 이 절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마친 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좋은 직업을 얻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큰 보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얼마나 큰 수익을 얻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 절에서는 앞 절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다.

## II. 교육기회의 불평등

### 1. 가족배경과 성적

지난 수 십 년 동안 사회학 경험 연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구주제는 아마도 학교 성적의 불평등이었을 것이다(Sørensen and Morgan, 2000).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한 콜먼(James S. Coleman)은 애초에 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와 같은 성적 향상을 학교의 사회관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학교라는 사회체계와 교육성과의 연관성은 미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Coleman, 1961).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가족이 학교보다 학업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학교에서 맺는 사회관계는 가족이라는 사회체계가 만든 학업성적의 불평등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Coleman et al., 1966).

가족배경이 학교요인보다 학업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콜먼의 발견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 연구는 1970년대의 국제자료를 이용하여, 콜먼의 결론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선진산업사회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학교효과보다 더 크지만, 산업화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반대로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가족배경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Heyneman and Loxley, 1983). 이후 이 가설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반복해서 검증되었다(cf. Buchmann and Hannum, 2001). 그러나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후진국에서도 가족배경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거나(Riddell, 1989; Lockheed and Longford, 1991), 산업화의 수준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족배경이 학교보다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Baker et al., 2002).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자녀의 학교 성적도 높다. 왜 그러한가? 지금까지 학업성적을 다룬 구미의 연구들은 그 까닭을 주로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콜먼을 따르는 일련의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족의 형태나 형제자매 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자본이 자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정하였다(McLanahan and Sandefur, 1994; Hao, 1994; Sui-Chu and Willms, 1996). 다른 부류의 연구는 문화자본 개념을 끌어들여 가족배경이 자녀의 언어·인지·심미적·사회적 차원의 능력을 결정하고, 이 능력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DiMaggio, 1982; Katsillis and Rubinson, 1990; Roscigno and Ainsworth-Darnell, 1999; Lareau and Horvat, 1999; De Graaf et. al., 2000; Lareau and Weininger, 2003). 다시 말해 이 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자녀가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 이 자본이 자녀의 성적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던 셈이다.

한국의 사정도 구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업성적을 다룬 연구들은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이 가족의 사회적 특권과 자녀의 교육성과(educational outcomes)의 연관성을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사회자본에 관심을 기울였던 한국의 연구는 가족배경과 자녀 성적의 연관성을 가족형태나 형제자매의 수 등으로 설명하였는가 하면(이정환, 1998; 오계훈·김경근, 2001; 김경근, 2005; 김현주·이병훈, 2007; Park, 2014), 부모의 관심과 관여, 교육지원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주동범, 1998; 김경근, 2000; 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Park et al., 2011). 이들 연구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바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편부모 가족,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가족, 부모의 관심과 관여가 낮고 교육지원이 적은 가족의 자녀의 성적이 더 낮다는 것이다.

문화자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그렇게 적지 않다(장미혜, 2002; 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장상수, 2008a; Park, 2008; Byun et al., 2012). 장미혜는 직접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예술적 취향이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취향이나 능력이 많으면 성적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미혜(2002)는 문화자본 변수를 추가했을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성적에 미치는 효과가 약 15-20%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문화자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성적의 연관성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사용 자료는 달랐지만, 후속 연구가 발견한 사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Byun et al., 2012). 이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와 자녀의 예술적 취향이나 독서습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 취향이나 습관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미혜(2002)와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첫째, 장미혜(2002)는 문화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조작화하든 이 자본이 자녀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속 연구는 문화자본을 고급의 심미적 문화의 소비로 조작화하면, 이 자본이 자녀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장상수, 2008a; Byun et al., 2012). 둘째, 장미혜(2002)는 문화자본이 가족의 특권과 자녀 성적을 매개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후속 연구는 그 매개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거나(김경근·변수용, 2007; 변수용·김경근, 2008; Byun et al., 2012), 매개 역할을 부정하였다(장상수, 2008a).

이상과 같은 연구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을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였다. 예컨대 한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이 관여가 클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부모의 관여를 유도하는 정책은 학업성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Byun et al., 2012). 그러나 이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적의 연관성을 충분히 해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성적이 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특징을 명쾌하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파악하려면 인류학적 비교든 역사적 비교든 비교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학업성적 불평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과거보다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만 이런 비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인류학적 비교를 보자. 한국의 성적 불평등,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가? 국제학생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연구를 진행하였던 OECD의 공식 보고서가 이 질문에 답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5세 학생의 인지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대 초반에는 OECD 평균보다 크지 않았으나(OECD, 2001), 2010년대 초반에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더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OECD, 2013).

성적 불평등의 시계열 경향을 보인 연구도 드물었다. 변수용과 김경근(Byun and Kim, 2010)은 국제 수학·과학성적 동향(Trends of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와 PISA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점차 커졌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들은 이런 불평등 격화의 원인을 소득불평등에서 찾기도 하였지만, 중등학교의 학교간 분화와 학교 안의 계열화(tracking)의 비율과 정도가 커졌다는 사실에서 찾았다. 그들은 교육제도가 변하면서 학교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줄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적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장상수(2013)도 PISA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대 중후반에 더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이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악화하였다는 사실로 설명하였다.

이미 보았지만 한국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분야의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 아직 부족한 몇 가지를 보강해야

2) 다른 연구도 한국에서 학업성적의 불평등이 더 커진 원인을 중등학교의 분화와 서열화를 부추겼던 교육정책에서 찾았다(Park 2013).

한다. 첫째,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 개념을 도입한 연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과정을 보려고, 다시 말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왜 자녀의 성적이 높은지를 보려고 도입한 개념이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지위가 높으면 사회적 관계망이나 문화적 취향이 달라 자녀의 성적이 높다는 것을 보려는 것이었다(Kingston, 2001; Dumais, 2002).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학업성적 불평등을 다룬 연구는 이런 매개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자본이나 문화자본을 기계적으로 취급하였다. 예컨대 이 연구들은 가족형태나 형제자매 수, 부모의 관여 등을 사회자본이라 간주하고, 고급의 심미적 문화의 소비를 문화자본이라고 미리 정한 다음, 이들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였을 뿐, 이 자본이 가족배경과 자녀 성적을 매개하는 정도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연구는 인과고리를 풍부하게 하는 작업이나 지식을 넓히는 일과 거리가 멀다(장상수, 2008a; 김영화, 2012).

둘째, 한국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누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연구가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은 증거점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구미에서는 가족배경과 자녀 성적의 연관성을 사회경제적 기울기(socioeconomic gradient) 모형으로 측정하고 있는데(Willms, 2003; 2006), 우리 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분석할 때에도 이런 모형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기울기 모형에 근거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들어 몇몇 연구가 예외적으로 이 모형을 사용하였을 뿐이다(Byun and Kim, 2010; Kim, 2012; Park, 2013).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경제적 기울기 모형이 성적 불평등을 재는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언젠가는 이보다 더 나은 새로운 잣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도식이 지금까지 고안한 그 어떤 모형보다 가장 그럴싸한 모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연구 성과가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이를 누적하려면 한국에서도 이 모형으로 분석을 쌓아 갈 필요가 있다. 이런 틀은 한국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열개를 그럴 때에도 필요하지만 국제 비교나 시계열 경향을 보려 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 시계열 경향이나 국제비교에 나선 앞선 연구가 이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Byun and Kim, 2010; Park, 2013).

셋째, 국제비교든 시계열 비교든 비교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을 국제비교의 맥락에 놓았던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 핀란드의 성적 불평등을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의 교육 제도의 특징을 부각하는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Park, 2013).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학교 사이의 성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골고루 더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창조성이나 수월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중등학교의 계열화를 강화하는 ‘문제 있는 방향전환(troubling turn)’을 추진하였는데, 이 전환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은 키우지 못하면서 형평성(equity)만 악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이 연구는 비교연구의 전범을 보여준다.

넷째, 학업성적의 성 차이가 변화해 온 과정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을 앞질렀는바, 한국에서도 2010년대 초반부터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의 한 원인은 여학생의 성적 평균이 남학생보다 더 높거나 여학생의 성적 분산이 남학생보다 더 작다는 데에 있다(Becker et al. 2010). 그러므로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른 현상을 이해하려면, 성적의 성 차이가 시계열적으로 바뀌는 방향을 보아야 한다. 장상수(2013)는 한국 여학생의 성적이 2000년대 내내 남학생을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였으나,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한국에서 학업성적의 성 차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연구가 필요하다.

## 2. 가족배경과 학력성취

학력성취는 학력 단계의 이행을 말한다. 다시 말해 특정 학력 단계를 마치고 상위의 학력 단계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학력성취다.

학력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고, 다른 하나는 자녀의 학업성적이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높을수록 자녀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그 학교를 마칠 가능성은 더 높다. 그런데 이 두 요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요인이 학력성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 일찍이 부동(Boudon, 1974)은 학업성적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효과(primary effect), 자녀의 학업성적과 무관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이차효과(secondary effect)라고 명명하였고, 간단한 계산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차효과는 일차효과보다 더 크거나 강한 것인가? 최근 들어 몇 연구는 이 효과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Jackson et. al., 2007; Karlson and Anders, 2011; Morgan, 2012).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은 서로 달랐으나,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든 이차효과는 일차효과보다 더 컸다. 영국에서는 약 16세의 학생이 A 수준(A-level)의 중등학교로 진학할 때 일차효과는 약 30퍼센트, 이차효과는 약 70퍼센트 안팎이었다(Erikson et al., 2005; Jackson et al., 2007). 덴마크(Karlson and Anders, 2011)나 독일(Schindler and Lörz, 2012)에서도 이차효과는 일차효과보다 훨씬 더 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이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 계열을 선택할 때 이차효과의 비중은 약 6-70 퍼센트에 이르고, 일차효과는 3-40퍼센트에 불과하였다(장상수, 2007). 사정이 이렇다면 학력성취의 불평등은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성취는 성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비롯하는 이행성향(transition propensity)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구미에서 학력성취를 다룬 앞선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난 수 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력성취의 불평등(학력성취의 계급 차이)은 감소하지 않았다. 교육체계가 팽창하였고, 갖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는데도 그러하였다.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이런 경향은 예외적이었다. 둘째, 학력성취의 성 차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sup>3)</sup> 셋째, 가족배경의 영향은 이행단계가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가족배경의 영향은 하급 학력의 이행단계에서

3) 앞 절에서 언급하였지만, 선진산업사회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학력성취가 남성을 도리어 앞질렀다.

가장 컸고 상급 학력의 이행단계에 이르러 점차 감소하였다(Blossfeld and Shavit, 1993; Shavit and Blossfeld, 1996; Breen and Goldthorpe, 1997).

이러한 경험적 규칙성 가운데 세 번째 규칙성이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sup>4)</sup> 그러나 여기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규칙성, 즉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와 성 차이는 지난 수 십 년 사이에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는 어떠한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구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를 다룬 경험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각 급 학교 재학생이 출신 계급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피거나, 특정 지역이나 표본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별로 자녀의 평균 교육연수가 얼마나 다른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이상백·김채윤, 1966; 김영모, 1973; 배무기, 1979; 유팔무, 1981; 김신일, 1982; 한만길, 1991). 다른 부류는 자녀의 최종 수학 연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교육이나 직업 지위를 독립변수로 한 분석이었다(김신일, 1985; 강희돈, 1988; 차종천, 1992; 김영화·김병관, 1999). 이런 연구의 결론은 사용한 자료와 방법, 연구 대상 시기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의 연구는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이 차이는 시간이 흘러도 늘거나 줄지 않고 불규칙하게 움직였다(김신일, 1985; 차종천, 1992; 김영화, 1993).

그러나 오늘날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를 측정하는 표준적 방법은 메어(Mare, 1980; 1981)의 순차적 로지스틱 회귀분석(sequential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는 가족배경이 학력단계별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예컨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학에 진학할 확률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확률의 비(odds)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sup>5)</sup> 이런 방법으로 한국의 교육 불평등을 살핀 연구는 김영화(1993)가

4) 이 규칙성에 대한 논란은 Mare(1993), Cameron and Heckman(1998), Lucas(2001) 등을 보라.

5) 가족배경이 학력 단계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족배경이 최종수학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방법보다 더 나은 까닭은 가족배경과 학력성취의 연관성에서 교육체계 팽창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Mare, 1980; 1981).

처음이었지만, 이 분야 연구는 아무래도 여러 자료가 생산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하였다(김영화, 2000; 장상수, 2000; 2006; 2007; 2013;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김기현, 2005; Park, 2007a).

이 연구들은 주로 한국노동연구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급 학교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가 높을수록 자녀의 상급 학교 이행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거의 상식이어서 눈길을 끌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상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국가 비교나 시계열 비교의 맥락에 놓아야 한다. 한국의 학력성취 불평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가?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는 힘들다. 비교의 기준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이 분야 연구는 대체로 국가 비교보다 시계열 비교에 치중하였다. 국가 비교를 할 때에도 주로 시계열 경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불평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화하였는가, 강화하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개별 연구의 대답은 서로 달랐다. 어떤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거나 불규칙하게 진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 연구는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상급 학교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장상수, 2000; Park, 2007b). 다만 몇 연구는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가 점차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방하남·김기현(2002)과 장상수(2007)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를 마친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계열을 선택할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미친 영향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점차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장상수(2006)는 남성의 교육 불평등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교육이 딸의 4년제 대학 졸업에 미친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000년대 후반의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를 사용했던 장상수(2013)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990년대 후반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는 이전보다 더 커졌고 특히 여성에게서 그 차이는 더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연구 성과의 개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판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는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증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에서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는 점차 악화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앞 절에서 학업성적의 불평등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악화하였다는 연구를 소개하였던 바,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교육기회는 적어도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주제는 학력성취의 성 차이이다. 이미정(Lee, 1998)은 한국 여성의 학력성취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을 밝힌 다음, 이와 같은 차이가 부모의 성차별적 자원배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자녀가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이 성차별적 투자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차별적 교육투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력성취의 성 차이의 시계열적 경향을 다룬 연구는 모두 지난 수십 년 동안 학력성취의 성 차이가 점차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였다(장상수, 2001; 2006; 2013; 방하남·김기현, 2002; 2003; 김기현, 2005; Park, 2007a).

지난 수십 년 동안 학력 성취의 성 차이가 감소했다는 것을 밝힌 이 연구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성 차이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에서는 여학생의 학력이 남학생보다 더 높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여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아졌거니와,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력성취에서 여성의 불리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는데도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대학에 진학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Ⅲ. 교육 수익

#### 1. 교육의 직업수익 : 학교-직장 이행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는 보통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를 치르면서 바뀌었다. 어린이는 성인식을 치르면서 성인이 되고 결혼식을 거치면서 가구를 이루었다(van Gennep, 1992). 그러나 오늘날 개인의 지위 변화는 흔히 직업과 관련한다. 성행위, 결혼과 가구형성, 출산, 이혼 등은 모두 직업을 얻고 바꾸며 잃는 일과 얽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업획득은 지위통과(status passages)의 가장 큰 계기라고 해도 무방하다(Hannan and Werquin, 2001).

직업이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힘이라면, 이 직업을 얻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교육이다. 직업 획득은 다른 무엇보다 교육과 긴밀하게 관련한다(Breen et al., 1995; Müller and Shavit, 1998; Müller and Wolbers, 2003). 이처럼 교육이 직업을 얻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이 지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면, 청년층이 학교를 마치고 첫 직업을 얻는 과정, 즉 학교-직장 이행(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은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 때문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학교-직장 이행을 다룬 연구는 그렇게 적지 않다. 적지 않은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학 연구다. 사회학 연구는 주로 학력이 첫 직업의 종류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그리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거나 나은 직업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혔다(김병성 외, 1982; 차종천, 1992; 설동훈, 1994;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1999b; 김기현, 2003; 有田伸, 2006; Sandfur and Park, 2007). 이처럼 사회학 연구는 주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나 어떤 종류의 직업(계급)에 도달하는지, 즉 직업성과(occupational outcomes)를 분석하였지만, 청년들이 학교를 마친 뒤 얼마나 빨리 직업을 잡는지를 분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시간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다.<sup>6)</sup>

6) 구미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선 연구는 대부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직장 이행의 정태적 상태를 나라별로 비교하였다(Shavit and Müller, 1998).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이행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Korpi, 2003; Scherer, 2005; Wolbers, 2007).

두 번째 연구 경향은 노동경제학의 접근이다. 이 접근은 사회학과 달리, 주로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첫 직업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진입대기기간, 취업대기기간 또는 이행기간)을 중시하였다. 나아가 이 접근은 학력이나 성, 그리고 진입대기기간 등이 일정 기간 안에 취업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접근을 사용한 연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진입대기기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위험률, 즉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안주엽·홍서연, 2002; 이병희, 2003; 2005; 류장수, 2005; 김미란, 2006; OECD, 2007). 이 연구들은 이렇게 시간 차원을 고려하면서 사회학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였지만 사회학 연구의 장점을 살리지는 못하였다. 이 접근은 교육이 노동시장 진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얻은 직업의 종류나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 지위가 더 높다거나 취업가능성이 더 크다는 발견은 너무 상식적이어서 신선하지 않다. 이런 발견이 상식 차원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 비교든 시계열 비교든 비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직장 이행의 국가 비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앞선 연구가 국가 비교를 위해서 교육제도나 노동시장구조의 차이, 학교와 노동시장을 잇는 연결구조의 차이, 또는 노동시장 진입을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등의 기준을 내세웠지만(Kerckhoff, 1995; 2000; 2001), 이 기준은 너무 단순하여 한 나라의 학교-직장 이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선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학교-직장 이행을 다른 앞선 연구는 국제 비교라기보다 주로 시계열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 연구는 1990년과 1995년의 KII 자료를 사용하여 학력이 첫 직업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첫 직업의 지위에 미치는 학력의 효과가 코호트마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장상수, 1999b). 그러나 1998년에 수집한 KLIPS 자료를 활용했던 다른 연구는 이 효과가 남녀별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학력 효과는 코호트별로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여성의 학력, 특히 고등교육의 효과는 젊은 코호트에 이룰수록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얻는 직업 지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는 이렇게 여성 고등교육의 직업 수익률이 감소한 이유를 한국의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고, 여성은 이차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런 직업 분리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았다(Sandfur and Park, 2007).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노동경제학은 이행 기간을 고려하고, 이 기간이 취업이라는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최근 들어 사회학에서도 이런 접근을 채택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런 연구가 경제학의 성과와 다른 점은 일자리 획득 여부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는 일자리의 종류까지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장상수(2008b)는 2000년에 수집한 KLIPS 청년층 부가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층이 학교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성과 학력, 그리고 취업시기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가능성과 첫 계급 도착에 미치는 영향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sup>7)</sup> 먼저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 가지 사실을 밝혔다. 여성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미취업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성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은 2000년에 이를수록 매년 조금씩 어려워졌다. 이는 남성 저학력자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성과 학력이 특정한 직업 범주 또는 계급에 진입할 가능성에 미친 영향의 시계열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육체노동자층과 화이트칼라 하층에 진입할 때 학력효과는 별다른 시계열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화이트칼라 상층에 진입할 때에는 유의미한 시계열적 경향성을 보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효과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였지만, 사년제 대학의 효과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 발견을 앞의 발견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학력자의 취업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어려워졌으며, 화이트칼라 상층 진입에서도 학력별 격차가 증가하였다.

7) 여기서 직업은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화이트칼라 상층(서비스계급), 화이트칼라 하층(하위 사무직), 육체노동자층이 그것들이다. 에릭슨과 골드소프(Erikson and Goldthorpe, 1992)의 계급 구분법을 따르자면, 화이트칼라 상층은 서비스계급(I+II), 화이트칼라 하층은 하위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III), 육체노동자층은 육체노동자계급(V+VI+VII)에 해당한다.

우해봉과 윤인진(2008)은 KLIPS 자료를 분석하여 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성과 학력의 영향이 1997년의 경제위기 전후에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뜻밖에도 경제위기 이후에 졸업한 청년들이 경제위기 이전에 학교를 마친 청년들보다 첫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고용관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고, 경제위기 이후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후 이들은 다른 글에서 이보다 조금 더 분명한 논지를 제시하였는데(Woo and Yoon, 2010), 그들의 발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고학력자가 첫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커졌는데, 저학력자는 그러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경제위기 이후 첫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의 학력별 격차는 경제위기 전보다 더 커졌다. 이러한 학력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컸다. 둘째, 경제위기 이후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비표준직(임시직, 비정규직) 직업이나 낮은 지위의 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커졌으나, 학력이 첫 직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의 여러 연구가 내놓은 결과는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2000년에 근접할수록 남성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발견(장상수, 2008b)은 경제위기 이후 남성 취업 가능성의 학력별 변이가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컸다는 발견(Woo and Yoon, 2010)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다른 점도 없지 않다. 여성의 학력이 첫 직업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젊은 코호트에 이를수록 점차 낮아졌다는 결과(Sandfur and Park, 2007)는 학력효과가 코호트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발견(장상수, 1999b; Woo and Yoon, 2010)과 다르고, 첫 직업의 질에 미치는 학력의 효과가 경제위기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발견(Woo and Yoon, 2010)은 화이트칼라 상층으로 진입할 때 4년제 대학의 효과가 2000년 무렵까지 점차 커졌다는 발견(장상수, 2008b)와 다르다.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어쨌든 이 연구들은 한국에서 교육의 직업 수익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인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인가? 한 연구는 여성 고등교육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직업 수익이 낮아졌음을 보였다

(Sandfur and Park, 2007). 이에 반해 다른 연구는 남성 고학력자가 화이트칼라 상층에 도달할 가능성은 취업시기가 2000년에 근접할수록 점차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장상수, 2008b), 이는 교육의 직업 수익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가? 결론은 먼저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학력이 특정 계급에 도달한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커졌다고 해서 교육의 직업 수익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해석은 선부르다. 왜냐하면 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은 교육의 공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의 공급이 증가하면 고용시장에서 직업이나 직종별로 채용 기준을 바꾸는 양적 조정(quantity adjustment)이 일어난다(Thurow, 1977; 박세일, 1983a; 1983b). 이와 같은 양적 조정은 같은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종류가 하향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시장에서 일어나는 하향 조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첫째, 비교적 유리한 직업군에서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 그리하여 이 직업이나 계급의 성취에 미치는 교육의 효과, 특히 고학력의 효과는 점차 증대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가장 유리한 직업군에 접근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의 측면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어느 정도 더 많은 기회를 갖느냐는 측면에 한정된다. 고학력자만을 한정해서 본다면, 고학력자가 유리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 접근 기회, 즉 실제의 기회는 교육체계의 팽창에 따라 더욱 더 감소한다. 왜냐하면,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할 때 고등 교육은 충분조건에서 필요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이다(Müller et al., 1998).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남성 고학력자가 화이트칼라 상층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장상수(2008b)의 발견을 남성의 직업 수익이 높아졌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직업 수익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가?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변하지 않았다(장상수, 1999b; 우해봉·윤인진, 2008; Woo and Yoon, 2010).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를 인정한다면, 교육의 직업 수익은 점차 하락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Sandfur and Park, 2007).

고용시장에서 일어나는 양적 조정을 감안하면 교육의 직업 수익을 진정한 의미의 교육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교육의 직업 수익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육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의 직업 수익률이 갖는 이런 한계 때문에 교육의 화폐 수익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의 화폐 수익을 보기로 한다.

## 2. 교육의 임금 수익

교육의 화폐 수익률, 특히 임금 수익률을 알아내려는 것은 사회학이라기보다 노동경제학의 임무였지만, 사회학이 교육의 화폐 수익을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사회학은 임금 불평등을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학력별 임금 불평등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임금 수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로 노동시장의 조직과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학에서는 교육의 임금 수익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기업 규모나 고용형태, 노동조합 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cf. 정이환, 2006; 2007). 이는 고전적 의미의 교육 수익률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임금 수익률을 다루는 이 절에서는 주로 노동경제학의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 교육의 임금 수익률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내부수익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식 (1)과 같은 민서(Mincer, 1974)의 인적자본 소득함수(human capital earnings function)로 수익률을 계측하였다. 이 방정식에서 임금률의 대수값, 즉 시간당 임금( $R$ )의 대수값은 교육( $S$ )과 경력( $X$ )의 함수고, 교육의 계수  $b_1$ 은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는 비율을 나타낸다.

$$\ln R = b_0 + b_1 S + b_2 X + b_3 X^2 + u \quad (1)$$

그러나 민서의 임금 함수를 이용했다고 해서 이 연구들이 모두 같은 추정 방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이 연구들은 임금 수익률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구미에서 임금 수익률을 다루었던 연구들은 교육과 임금 사이에 인과성을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 편의(bias)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Card, 1999; 2001).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와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개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한, 민서의 임금 방정식에서 교육수준의 계수는 이른바 내생성 편이 때문에 교육의 임금 수익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내생성 편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은 이른바 도구변수법이다. 다른 한편, 여성의 임금 수익률은 여성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참여 제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선택 편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편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헤크먼의 선택 모형이다(Heckman, 1979). 이런 편이 외에도 여성의 임금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다른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훨씬 이질적인데 이를 고려한다면 각 임금 수준에서 교육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금 수준별 수익률은 분위 회귀식으로 구할 수 있다(Koenker, 2005; Hao and Naiman, 2007).

한국의 앞선 연구도 귀적을 같이 하였다. 어떤 연구는 보통의 회귀분석(OLS regression)으로 수익률을 구하였는가 하면(Choi, 1996; 최강식·정진호, 2003; 김홍균·이예리, 2003; 금재호, 2004; 한성신·조인숙, 2007; 박성준·황상인, 2005), 도구변수를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최강식, 2002; 장수명·이변송, 2001; 백일우·임정준, 2008). 여성의 수익률을 계측할 때에는 선택 모형과 분위회귀모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Lee and Lee, 2006; 임정준·백일우, 2010).

그러나 이들 연구가 수익률 추정 방법만 달리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 연구의 분석 모형도 서로 달랐다.<sup>8)</sup> 한국의 연구는 대부분 민서의 인적자본 소득함수가 아니라 이를 변형하거나 확장한 식 (2)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적자본 함수에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인구학적 특성 등과 같은 여러 통제변수( $C_i$ )를 추가하였다.

$$\ln R = c_0 + c_1 S + c_2 X + c_3 X^2 + \sum c_{4i} C_i + v \quad (2)$$

8) 당연한 일이지만, 분석 모형과 추정 방법만 달랐던 것은 아니고 분석 자료도 달랐다. 이들 연구는 KLIPS, 경제활동조사, 한국종합조사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석 모형과 추정 방법으로 수익률을 계측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임금 수익률 추정치는 연구마다 서로 달랐다. 장수명·이변송(2001), 금재호(2004), 한성신·조인숙(2007) 등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교육 수익률을 3-5퍼센트대로 낮게 추정하였는가 하면, 선택모형과 도구변수법을 사용했던 백일우·임정준(2008), 임정준(2010)은 10-15퍼센트로 높게 추정하였다. 나머지 연구는 대부분 6-10퍼센트의 수익률을 보고하였다.

남성의 임금수익률에 대한 관심은 오래 된 것이었지만, 여성의 임금 수익률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앞선 연구는 대부분 여성의 교육 수익률은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최강식, 2002), 도리어 남성의 수익률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금재호, 2004; 한성신·조인숙, 2007). 이런 결과는 여성의 수익률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구미의 연구성과와 일치하지 않는다(Dougherty, 2003; Psacharopoulos and Patrinos, 2004). 그러나 백일우·임정준(2008)은 구미에서 그런 것처럼 2005년 현재 여성의 수익률(9.7퍼센트)이 남성(8.7퍼센트)보다 더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임금 수익률은 타국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가? 한 연구는 임금 수익률의 전 세계 평균은 약 9.7퍼센트이고 OECD 국가의 평균은 약 7.1퍼센트라고 보고하였고, 남성의 수익률은 8.7퍼센트이고 여성의 수익률은 9.8퍼센트라고 보고하였다(Psacharopoulos and Patrinos, 2004). 그러나 오늘날 이 연구의 수치를 비교의 준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 보고한 수치는 각 나라에서 추출한 수익률인데, 이 자료가 수집된 연도는 나라마다 들쭉날쭉하다. 예컨대, 그 연구에서 보고한 한국의 수익률(13.5퍼센트)은 류재경 등(Ryoo et al., 1993)이 1986년 자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연구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국가 비교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OECD의 공식보고서다(OECD, 2011). OECD(2011)는 각국의 25-64세 인구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임금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과 비교하였는데, 조사 대상자가 모두 사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단순화하면, 이 상대임금을 1년 단위의 수익률로 환산할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이렇게 계산한 OECD 평균 수익률은 남자 약 17퍼센트, 여자 약 16퍼센트였다. 한국은 2008년 현재

남자의 수익률은 8.8퍼센트, 여자는 13.8퍼센트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30개 조사 국가에서 남자는 29위, 여자는 24위였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의 교육 수익률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의 교육 수익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데, 그렇다면 이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였는가? 수익률의 시계열 경향을 보인 연구는 드물다. 몇 연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에 식 (2)를 적용하여 1983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교육투자수익률의 경향을 보였었다(Choi, 1996; 최강식·정진호, 2003). 이들 연구는 1983년에 13퍼센트를 넘었던 수익률이 1980년대 내내 감소하다가 1994년에는 약 9퍼센트에 이르렀고, 이 수익률은 1994년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0년에는 11퍼센트에 근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덧붙여 이런 경향이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들은 수익률 변화가 이렇게 납작한 그릇 모양을 띤 이유를 찾기도 하였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것은 주로 대학 졸업자의 공급 증가 때문이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수익률이 완만하게 높아졌던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간 고용구조의 변화 탓이 아니라 주로 산업내의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 탓에 비롯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분야의 앞선 연구는 다소 어수선하다. 분석모형이 다르고 분석방법이 달라 수익률의 크기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남녀의 수익률 격차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어수선한 논의에서도 윤곽이 비교적 선명한 것도 있다. 첫째, 한국의 교육 수익률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 타국의 그것보다 크지 않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둘째, 수익률은 1980년대 내내 감소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러 가지다. 첫째,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선 연구는 내생성 편익과 선택 편익을 제거하고, 여성 임금 분포의 편향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의 측정오차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신동균, 2010). 내생성 문제나 선택 문제, 그리고 측정오차 문제는 항상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다.

둘째, 그러나 다른 어떤 세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선 연구의 교육 수익률을 서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교가 어려운 까닭은 교육 수익률을 측정하는 모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연구는 교육 수익률을 추정할 때 대부분 식 (2)와 같은 임금 함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추가로 도입하는  $C_i$ 는 흔히 직업 관련 특성, 예컨대 직업 지위, 기업의 규모, 고용 지위 등이거나 인구학적 특성, 예컨대 혼인 여부, 거주지 등이다. 경제학이든 사회학이든 앞선 연구는 이런 함수로 흔히 직업 관련 특성이 임금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예컨대 기업규모나 노동조합이 임금률에 미치는 영향, 혼인 여부가 임금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명하였다. 그러나 이런 함수로 추정하는 교육의 계수  $c_1$ 은 교육 수익률이라고 이름붙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c_1$ 은 교육의 직접 효과만 나타낼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익률은 교육의 직접 효과 뿐 아니라 간접 효과까지 포괄한다. 그러므로 교육 수익률을 식 (2)가 아니라 식 (1)로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다(Becker, 1964; Psacharopoulos and Patrinos, 2004).<sup>9)</sup>

셋째, 앞선 연구가 누적된 까닭에 교육의 임금 수익률을 나라별로 비교하는 일은 비교적 쉽지만,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할 때에만 이 수익률과 다른 현상, 예컨대 대학 진학률 등을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이 시계열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3. 여성 교육의 혼인 수익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한국인의 학력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상승하여 2000년 무렵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9)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으며, 식 (1)의 모형을 정확하게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b_1$ 은 교육 투자의 내부수익률과 일치한다(Willis, 1987: 532).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은 무상이 아니고, 경력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식 (1)로 추정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60퍼센트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는 80퍼센트 가까이 진학하였다. 10년도 지나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두 배 이상 늘어났던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남녀의 진학률 차이의 경향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낮았으나 그 차이는 차츰 줄다가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 드디어 남성을 앞질렀다.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진 까닭은 무엇인가? 구미의 연구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을 주로 경제 조건의 변화로 설명하였다(cf. Walters, 1986; Goldin, 2006; Goldin et al., 2006). 다시 말해 이 연구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늘어나고 여성 교육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도 여성의 대학 진학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없지 않았다. 예컨대 이연주와 조세화(Lee and Cho, 1999)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 상승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에 동의하는 연구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그런 설명을 거스르는 연구가 더 많았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여했던 것은 아니어서, 학력과 노동시장 참여율은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가 있었는데(Lee et al., 1995),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화이트칼라 직업 종사 비율 변화와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다(Brinton and Lee, 2001).

진학률과 경제적 요인이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 여성은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많이 대학에 진학하였는가? 적지 않은 연구자는 한국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대학에 진학한다고 추론했다(김영화, 1993; Sorenson, 1994; Lee et. al., 1995; Lett, 1998; Brinton and Lee, 2001; Seth, 2002). 일련의 연구는 이 추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은 직업, 승진가능성, 임금 등에서 낮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Lee, 1998; Lee, 2001).

이처럼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결혼시장에서 얻는

수익 때문에 높아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지만, 이런 견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증거에서 비롯한 것이다. 주로 자료의 제약 때문이었겠지만 앞선 연구는 진학률과 노동시장 참여율과 같은 거시적인 지표의 관련을 살폈을 뿐, 직접 여성 교육의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이 절에서는 여성 교육의 혼인 수익을 살펴보고, 이 수익을 노동시장에서 얻는 수익과 비교하기로 한다.

혼인시장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학문 분과마다 서로 달랐다. 사회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인 수익을 동류혼(homogamy)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경제학에서는 여성이 혼인함으로써 얻는 화폐수익에 관심을 기울였다. 먼저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보자. 어떤 사회에서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남녀끼리 결합하는 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비슷한 학력을 갖춘 남성과 결혼한다(Kalmijn, 1998). 이처럼 동류혼이 지배적인 혼인형태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 여성은 자신의 학력을 높여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을 만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교육에 투자하여 고학력과 고소득의 남편을 얻는 수익을 얻는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수준별 동류혼에 대해 논의가 많았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론적 논의에서부터 경험적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방면의 논의는 풍부한 편이었다. 구미에서도 그러하였지만(Berent, 1954; Blau and Duncan, 1967; Ultee and Luijkx, 1990; Mare, 1991; Kalmijn, 1991; Uunk et al., 1996; Blackwell, 1998; Smits et al., 1998),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하였다(Park, 1991; 박경숙, 1993; 장상수, 1999a; 이명진, 2000; Park and Smits, 2005; Lee, 2010; 박현준·김경근, 2011; 2012).

교육 수익과 관련하여 이들 연구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여성이 특정 학력을 갖추었을 때 같은 학력을 갖춘 남성과 결혼한 가능성(odds)이 다른 학력의 여성이 그러할 가능성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따지는 것이었고, 이 유리함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느냐를 살피는 것이었다. 장상수(1999a)는 1990년과 1995년의 KII 자료를 사용하여 학력의 양극단에서 동류혼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특히 고학력(대학 졸업 학력)에서 동류혼의 경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른 자료를 분석했던 다른 연구도 같은 경향을 발견하였다(Park and Smits, 2005).

이에 더하여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던 몇 연구는 이런 학력간 동류혼의 경향이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특히 더 크다는 사실을 보였다(Smits and Park, 2009; 이명진, 2000). 어쨌든 이런 발견은 한국에서 여성이 교육수준별 동류혼으로 얻는 교육 수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수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가? 장상수(1999a)는 학력간 혼인 유형이 시계열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였던 한 연구는 1930-50년 출생 코호트까지는 학력 연관성이 점차 커지다가 1960-70년 출생 코호트에 이르러서는 그 연관성은 점차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Lee, 2010).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접수된 혼인 신고서를 바탕으로 학력 연관성의 결혼 코호트별 추이를 살폈던 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부부의 학력 연관성이 점차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박현준·김경준, 201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시계열 변화를 보았던 다른 연구도 1990년대 중반에 부부의 학력 연관성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 그 이후 그 연관성은 약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박현준·김경준, 2012). 이런 역 U 자 형태의 경향은 구미의 시계열 경향과 다르지 않다(Smits et al., 1998). 어쨌든 최근 연구는 모두 한국 여성이 교육으로 얻는 혼인 수익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약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혼인 수익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는 흥미롭고 유용하지만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다. 이런 접근은 여성이 장래가 유망한 고학력의 남성과 짝을 맺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힐 뿐 실제로 여성이 혼인으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수익을 얻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비하면 경제학 연구는 직접적이다. 경제학은 여성 교육의 수익을 화폐 단위로 추정하였다. 경제학 연구는 여성 교육과 남편 소득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득은 높아지는데(Lefgren and McIntyre, 2006; DeSilva and Bakhtiar, 2011), 앞선 연구는 이런 연관성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교차생산성과 동류혼이 바로 그것들이다. 전자를 근거로 한 설명은 여성 교육이 남편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남편의 임금이 크다고 주장하였다(Benham, 1974; Jepsen, 2005). 후자, 즉 동류혼에 초점을 맞추었던 다른 설명은 여성 교육과 남편 소득의 연관성이란 교육수준별 동류혼의

결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Welch, 1974).

여성의 교육과 남편 소득의 연관성이 교차 생산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동류혼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분석 모형도 달라진다. 어떤 분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오늘날 경험 분석에서 여성의 교육과 남편의 소득을 연결하는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식 (3)이다(Lefgren and McIntyre, 2006; DeSilva and Bakhtiar, 2011). 이 함수는 남편의 시간당 임금, 즉 임금을( $R^H$ ) 대수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성의 교육( $S^W$ )과 연령( $A$ )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이다.

$$\ln R^H = b_0' + b_1' S^W + b_2' A^W + b_3' A^{W^2} + \nu \quad (3)$$

수식 (3)으로 금방 알 수 있듯,  $b_1'$ 은 여성이 교육에 1년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남편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여성이 혼인으로 얻는 교육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구미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Benham, 1974; Huang et al., 2009; DeSilva and Bakhtiar, 2011), 이들 연구는 어느 나라에서든 여성의 혼인 수익률이 임금 수익률보다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한 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의 일본과 한국, 대만의 종합사회조사를 이용하여 여성이 결혼으로 얻는 화폐수익률을 추정하였는바, 일본 여성의 혼인 수익률은 임금 수익률보다 현저하게 높지만, 한국과 대만 여성의 혼인 수익률은 12-3퍼센트 안팎으로 임금 수익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고학력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인으로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던 셈이다(Chang, 2014). 그러나 이런 수익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을 다루었던 연구를 개관하였다. 그렇다고 이 글이 사회이동 전반을 망라하였던 것은 아니다. 사회이동의 연구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로 교육과 관련한 사회이동, 즉 교육기회 불평등과 교육 수익을 다루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학력성취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의 수익은 교육의 직업수익과 화폐수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사회이동의 또 하나의 큰 주제인 계급이동이나 직업이동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 글은 교육과 사회이동 연구사를 요약, 정리하여, 몇 가지 뚜렷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교육기회의 균등성은 점차 악화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초반 이래 점차 커졌거니와 지난 수 십 년 동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졌다. 둘째, 교육 수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교육의 직업 수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거니와, 임금 수익률도 감소하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임금 수익률은 타국보다 낮지 않았으나 2010년 무렵의 임금 수익률은 다른 나라보다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임금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여성의 혼인시장 수익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점차 악화하였고, 교육 수익은 점차 줄었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하다. 빈곤한 가족의 자녀는 예전보다 성적이 좋지 않고 더 높거나 좋은 학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들이 성적을 높이고 좋은 학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같은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화폐 수익도 예전 같지 않거니와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도 예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가난한 부모의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림 1>에서 보자면,  $a$ 는 커지고  $b$ 는 작아졌으므로  $ab$ 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므로  $ab$ 와  $c$ 의 크기가 시계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기회 불평등과 교육 수익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질문은 남는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왜 악화하였고, 교육 수익은 왜 감소하였는가?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짐작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이 이런 경향의 원인인가? 교육 수익이 점차 감소했던 이유를 짐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앞에서 잠시 보았듯, 임금 수익이든 혼인 수익이든 교육의 수익이 낮아지게 되었던 원인은 고학력자의 공급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Choi, 1996; 최강식·정진호, 2002).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을 찾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러 연구가 여기저기서 지적했듯 이런 경향은 계급정치(class politics)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흔히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구분하고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강한 친화력을 느낀다. 그러나 두 개념은 개념적으로만 구분 가능할 뿐 실제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먼저, 기회 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도리어 기회 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일으키거나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많은 편차를 보이지만, 시장경제는 결과의 불평등을 이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이렇게 생긴 결과의 불평등은 역설적이게도 기회 평등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생겼든 부모 세대에서 생긴 결과의 불평등은 자녀 세대에 이르러서는 조건의 불평등으로 바뀌고, 이 조건의 불평등은 자녀가 학업을 이어나가고 직업을 잡으며 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Sørensen, 2006).

앞선 연구는 이런 논리적 연결을 마음에 두고 일찍부터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면 결과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다(Jencks et al., 1972; Erikson and Goldthorpe, 1992; Breen and Goldthorpe, 1997; Goldthorpe, 2000).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결과의 불평등이 클수록 기회 불평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한다.<sup>10)</sup> 결과의 불평등에서 이들

1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가족 환경의 변이는 커지고, 자녀의 인지 발달 차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연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소득 불평등과 고용 안정성이었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을수록 기회 불평등은 더 커진다고 주장하였다(Breen and Goldthorpe, 1997; Goldthorpe, 2000). 이런 논리적 추론에 기대면, 한국의 교육 기회 균등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악화하였던 것은 소득 불평등이나 고용 안정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장상수 2013).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악화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교육정책도 중상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데에 한몫 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상층 학부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중등학교의 다양성을 장려하였다. 수월성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중등학교를 서열화하였고, 서열화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능력별 학급 편성과 능력별 수업을 장려하였다. 이런 서열화와 계열화(tracking)는 성적의 양극화와 성적의 계급 차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Byun and Kim, 2012; Park, 2013). 앞으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대학 진학 절차도 계급 편향적이었다.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입학전형절차를 다양화했던 정책은 중간계급이나 상층계급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도 학력성취의 계급 차이를 부추긴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의 이런 정책, 즉 경제, 노동, 교육 정책이 모두 지배계급이나 중상층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은 계급의 힘 관계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 수익 각 분야의 연구가 밝힌 성과는 그렇게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이 불평등이 교육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잘 비추었다. 그러나 이러저런 연구가 크게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료의 제약 등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그러하였겠지만, 이들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보였다.

---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도 심해져서 상급학교 진학 등과 같은 삶의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판돈의 크기가 커진다. 판돈이 클수록 승자는 더 많은 몫을 챙기고 패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적어진다. 그러므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쏟아 붓고, 그로 말미암아 불리한 위치의 부모와 자녀는 더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다(Sørensen, 2006).

첫째, 국제비교에 소홀하였고, 시계열적 경향을 보이는 데에 실패하였다. 교육 불평등이든 교육 수익이든 특정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컨대 여성 교육의 임금수익률이 13퍼센트라고 하고, 남성의 수익률이 10퍼센트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남녀의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발견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인류학적 비교든 역사적 비교든 비교가 필요하다. 일본과 비교하여 여성의 수익률이 높다든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더 높아졌다든지 하는 비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구미의 연구가 항상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이 이런 필요성을 증명한다. 구미와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인류학적 비교든 역사적 비교든 비교 연구가 적었다.

둘째, 그동안 한국의 사회이동 연구는 분과 학문간 협력에 힘을 들이지 않았다. 개별 학문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현상을 설명할 때 분과 학문의 경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예컨대 대학 교육의 팽창을 설명할 때 해당 사회의 교육 수익률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교육 수익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동안 사회학에서는 직업 수익을, 경제학에서는 임금 수익을 살펴 왔다. 직업이 사회적 불평등 체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직업 수익으로 대학의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체계의 팽창은 화폐수익과 관련짓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사회학은 좀처럼 화폐수익을 언급하지 않거나 그것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화폐수익을 사회이동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이 분야의 연구사를 개관하였는데, 기실 이 분야는 오랫동안 경제학의 고유 관심 영역이었다. 이런 관행을 버리고 경제학과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나란히 보였던 것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연구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 시도였다.

이런저런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효과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은 덤이다.

## 참고문헌

- 강희돈(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 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 차별. 응용경제, 6집 3호, pp. 259-289
- 김경근(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집 1호, pp. 21-40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교육고용패널 제1회 학술대회 발표문.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집 1호, pp. 23-51
- 김기현(2003).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3집 2호, pp. 65-93
- 김기현(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집 5호, pp. 119-151
- 김미란(2006). 청년층 첫 직장 이행. 임안·김안국 편.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이행.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성·정영애·이인효(1982). 학교 교육과 사회적 성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신일(1982). “교육기회의 불평등” 김영모 편. 현대사회문제론, pp. 108-121.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신일(1985).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모(197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진단학보, 35집 1호, pp. 121-165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 불평등.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화(2000). 한국의 교육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화(2012). 문화자본의 개념화와 문화자본 연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22집 2호, pp. 31-63
- 김영화·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집 1호, pp. 155-172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 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집 1호, pp. 125-148
- 김홍균·이예리(2003). 대학의 전공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공공경제, 8집 1호, pp. 3-27
-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외 저. 교육과 노동 시장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박경숙(1993).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유형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박병영·김미란·김기현·류기락(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연구(Ⅲ): 교육 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준·황상인(2005). 청년층 학력과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8집 3호, pp. 141-166.
- 박세일(1983a).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1). 한국개발연구, 4집, pp. 149-70
- 박세일(1983b).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한국개발연구, 5집, pp. 26-52
- 박현준·김경근(2011).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시계열 추세 및 그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21집 3호, pp. 51-76
- 박현준·김경근(2012). 한국 사회의 교육적 동질혼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집 4호, pp. 113-139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집 4호, pp. 7-26.
- 방하남·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 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집 4호, pp. 31-65
- 변수용·김경근(2008). 한국 고등학교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집 2호, pp. 53-82
- 배무기(1979). 교육투자와 소득분배. 주학중 편.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 요인(상), pp. 323-396.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백일우·임정준(2008). 도구변수를 이용한 여성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집 3호, pp. 75-94

- 백일우·임정준(2009). 여성고등교육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교육재정연구, 18집 1호, pp. 1-26
- 설동훈(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간 사회이동, 1978-1989 : 사무직과 생산직의 남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 사회. 서울 : 한울.
- 신광영(1994). 세대간 계급이동. 경제와 사회,, 23집 1호, pp. 82-116
- 신동균(2010).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경제학 연구, 58집 3호, pp. 221-254.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론집, 25집 1호, pp. 47-74.
- 오계훈·김경근(2001). 가족구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1집 2호, pp. 101-123
- 우해봉·윤인진(2008).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집 2호, pp. 225-250
- 유팔무(1981). 세대간 사회이동과 교육기회 불평등. 한국사회학연구, 5집, pp. 65-93
- 이상백·김채운(1966).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 민조사
- 이명진(2000). 한국사회의 선택혼 : 시기별 추이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34집 여름호, pp. 297-323
- 이병희(2005). 대학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이병희 외 저.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환(1998). 가족구조가 아이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2집 3호, pp. 621-644
- 이혜영·김미란·한준(2006). 학교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임정준(2010).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정준·백일우(2010). 소득분위별 여성의 고등교육투자에 대한 수익 분석. 교육재정연구, 19집 1호, pp. 29-56
- 장미혜(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집 4호, pp. 223-251

- 장상수(1998). 한국 사회의 계급 이동. 한국사회학, 32집 2호, pp. 367-393.
- 장상수(1999a).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2호, pp. 417-448
- 장상수(1999b). 학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 첫 계급으로의 이행. 한국사회학, 33집 4호, pp. 751-787
- 장상수(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집 3호, pp. 671-708
- 장상수(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집 1호, pp. 127-156
- 장상수(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1집 2호, pp. 118-146
- 장상수(2008a).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집 3호, pp. 63-85
- 장상수(2008b).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한국사회학, 42집 6호, pp. 106-139
- 장상수(2013). 여성의 교육 기회 변화: 학업 성적과 대학 교육. 김상욱 외 저. 한국 사회의 공정성 1990-2011, pp. 194-237.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수명·이변송(2001). 인적 자본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노동경제논집, 24집 1호, pp. 1-33
- 정이환(2006).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서울: 후마니타스
- 정이환(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 분석. 경제와 사회, 73집 1호, pp. 332-355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집 1호, pp. 41-56
- 차종천(1987). 지역주의가 한국 사회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집 여름호, pp. 69-91
- 차종천(1990a).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 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193-212. 서울: 성원사

- 차종천(1990b). 서울 시민의 배우자 선택 유형의 사회계층적 의미. 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pp. 186-206.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차종천(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서울: 나남.
- 최강식(2002). 교육투자의 경제적 수익률 분석. 응용경제, 4집 2호, pp. 5-30
- 최강식·정진호(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 분해. 국제경제연구, 9집 3호, pp. 183-208
- 한만길(1991). 대학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른 대학의 분화와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집 3호, pp. 251-266
- 한성신·조인숙(2007).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 및 학위효과: 남녀비교. 노동경제논집, 30집 1호, pp. 1-30
- 有田 伸(아리타 신)(2006). 韩国の教育と社会階層.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 Baker, David P., Brian Goesling, and Gerald K. Letendre(2002). Socioeconomic status, school qual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of the "Heyneman-Loxley effect" o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6, pp. 291-312
- Becker, Gary. S.(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New York: National B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cker, Gary S., William H. J. Hubbard, and Kevin M. Murphy(2010). "Explaining the worldwide boom in higher education of women." *Journal of human capital* 4(3): 203-241
- Benham, Lee(1974). Benefits of women's education within marri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p. S57-S71
- Berent, Jerzy(1954). Social mobility and marriage: A study of trends in England and Wales. D. V. Glass, eds. *Social mobility in Britain*, pp. 321-338.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lackwell, Debra L.(1998). Marital homogamy in the United St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paternal edu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27, pp. 159–188
- Blau, Peter. M.(1992). Mobility and status attainment.” *Contemporary sociology*, 21, pp. 596–98
- Blau, Peter M. and Otis Dudley Duncan(1967).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Blossfeld, Hans–Peter and Yossi Shavit(1993). Persisting barriers: change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irteen countries.” Y. Shavit and H–P. Blossfeld, 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1–24. Boulder, CO.: Westview Press
- Boudon, Raymond(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een, Richard(2005). *Social mobility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een, Richard and John H. Goldthorpe(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and Society*, 9, pp. 275–305
- Breen, Richard, Damian F. Hannan, Richard O’Leary(1995). Returns to education: Taking account of the employers’ perception and use of educational credi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1, pp. 59–73
- Brinton, Mary C. and Sun–hwa Lee(2001). Women’s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and South Korea. M. C. Brinton, eds. *Women’s lives in East Asia*, pp. 125–15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uchmann, Claudia and Emily Hannum(2001).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pp. 77–102

- Byun, Soo-yong and Kyung-keun Kim(2010).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The widening socioeconomic gap in student achievement.”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pp. 155-182
- Byun, Soo-yong, Evan Schofer, and Kyung-keun Kim(2012). Revisiting the role of cultural capital in East Asian educational systems: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85(3), pp. 219-239
- Cameron, Stephen V. and James J. Heckman(1998). Life cycle schooling and dynamic selection bias: Models and evidence for five cohorts of American mal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pp. 262-333
- Card, David(1999). The causal effect of education on earnings.” O. Ashenfelter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pp. 1811-1864. Amsterdam: North Holland
- Card, David(2001). Estimating the return to schooling: Progress on persistent econometric problems.” *Econometrica*, 69(5), pp. 1127-1160
- Chang, Sang-soo(2014). Returns to women’s education in the marriage market: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 Korea, and Taiwan.” Unpublished manuscript.
- Choi, Kang-Shik(1996). The impact of shifts in supply of college graduates : Repercussion of educational reform in Kore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5(1), pp. 1-9
- Coleman, James S.(1961). *The adolescent society: The social life of teenagers and its impact on educ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Coleman, James S., E. Q. Campbell, C. J. Hobson, J. McPartland, A. Mood, F. D. Weinfeld, and R. L. York(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 Graaf, Nan Dirk, Paul M.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pp. 92-111

- DeSilva, Sanjaya and Mohammed Mebrab Bin Bakhtiar(2011). Women, schooling, and marriage in rural Philippines. Working paper No. 701,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
- DiMaggio, Paul and John Mohr(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pp. 1231–1261
- Dougherty, Christopher(2003). Why is the rate of return to schooling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Discussion paper–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581(4).
- Dumais, Susan A.(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habitus.” Sociology of education, 75, pp. 44–68
-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London: Clarendon Press
- Erikson, Robert, John H. Goldthorpe, Michelle Jackson, Meir Yaish, David R. Cox(2005). Class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27), pp. 9730–9733
- Ganzeboom, Harry B. G., Donald J. Treiman, and Wout Ultee(1991). Comparative intergenerational stratification research: Three generations and beyon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pp. 277–302
- Goldin, Claudia(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pp. 1–21
- Goldin, Claudia, Lawrence F. Katz, and Ilyana Kuziemko(2006). The homecoming of American college women: The reversal of the college gender gap.”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4), pp. 133–156
- Goldthorpe, John H.(with Catriona Llewellyn and Clive Payne)(1987).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2nd ed. Oxford: Clarendon Press

- Goldthorpe, John H.(2000). Outline of a theory of social mobility.” J. H. Goldthorpe, eds. On sociology: Numbers, narratives, and the integration of research and theory, pp. 230–2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nan, Damian F. and Patrick Werquin(2001). Education and labour market change: The dynamics of education to work transitions in Europe–A review of the TESR programme. P. Descy and M. Tessaring, eds. Training in Europe–A second report on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 Europe 2000: Background report, Vol. 3, pp. 91–135.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Hao, Lingxin(1994). Kin support, welfare, and out-of-wedlock mothers. New York: Garland
- Hao, Lingxin and Daniel Q. Naiman(2007). Quantile regression. Thousand Oaks: Sage
- Heckman, James J.(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pp. 153–161
- Heyneman, Stephen P. and William A. Loxley(1983). The effect of primary school quality on academic achievement across twenty-nine high- and low-income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pp. 1162–1194
- Hong, Doo-seung(1980). Two channels of social mobility: patterns of social mobility in urban Korea. *Collected papers of social science in Korea*, 5, pp. 137–59
- Hout, Micahel and Thomas A. DiPrete(2006). What we have learned: RC28's contributions to knowledge about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4, pp. 1–20.
- Huang, Chong, Hongbin Li, Pai Wai Liu, and Junsen Zhang(2009). Why does spousal education matter for earnings? Assortative mating and cross-productiv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27(4), pp. 633–652

- Jackson, Michelle, Robert Erikson, John H. Goldthorpe, and Meir Yaish(2007).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in class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transition to A-level courses in England and Wales.” *Acta sociologica*, 50(3), pp. 221-229
- Jencks, Christopher(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Jepsen, Lisa K.(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wife’s education and husband’s earnings: Evidence from 1960 to 2000.” *Review of economics of household*, 3, pp. 197-214
- Kalmijn, Matthijs(1991). Shifting boundaries: Trends in religious and educational homoga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 786-800
- Kalmijn, Matthijs(1998). Intermarriage and homogamy: Causes, patterns, and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 395-421
- Karlson, Kristian Bernt and Holm Anders(2011). Decomposing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A new decomposition method.”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9(2), pp. 221-237
- Katsillis, John and Richard Rubinson(1990). Cultural capital, student achievement, and educational reproduction: The case of Gree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 270-279
- Kenny, Lawrence(1983).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during marriage by males. *Economic inquiry*, 21(2), pp. 223-31
- Kerckhoff, Alan C.(1995).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in industrial socie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pp. 323-47
- Kerckhoff, Alan C.(2000).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comparative perspective.” M. T. Hallinan,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453-474.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Kerckhoff, Alan C.(2001). Educ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proces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4(4 Extra), pp. 3-18
- Kerckhoff, Alan C. and Keith E. Davis(1962).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pp. 295-303
- Kingston, Paul W.(2001). The unfulfilled promise of cultural capital theory." *Sociology of education*, 74(Extra Issue), pp. 88-99
- Koenker, Roger(2005). *Quantile reg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pi, Tomas, Paul De Graaf, John Hendrickx and Richard Layte(2003). Vocational training and career employment precariousness in Great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Acta sociologica*, 46, pp. 17-30
- Kurz, Karin and Walter Müller(1987). Class mobility in the industrial worl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pp. 417-42
- Lamont, Michele and Annette Lareau(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6, pp. 153-68
- Lareau, Annette and Erin McNamara Horvat(1999). Moments of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Race, class, and cultural capital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Sociology of education*, 72, pp. 37-53
- Lareau, Annette and Elliot B. Weininger(2003). Cultural capital in educational research: A critical assessment." *Theory and society*, 32, pp. 567-606
- Lee, Byung-joo and Mary J. Lee(2006).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of wage determinant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7, pp. 1-31
- Lee, Mi-Jeong(1998).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Women's lives under institutional conflict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Myong-jin(2010). Temporal variation in the strength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rriage in Korea: A birth cohort analysis of the 2000 Korea census." *Development and society* 39(1), pp. 163-185
- Lee, Sun-hwa(2001).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South Korea. M. C. Brinton, eds.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pp. 204-23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Yeon-ju, Mary C. Brinton, and William L. Parish(1995). Married women's employment in rapidly industrializing societies: Examples from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pp. 1099-1130
- Lee, Yeon-ju and See-hwa Cho(1999).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ing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Korea from 1965 to 1994." *Development and society*, 28, pp. 285-312
- Lefgren, Lars and Frank L. McIntyre(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education and marriage outcom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4), pp. 787-830
- Lett, Denise Potrzeba(1998). In pursuit of status: The making of South Korea's new urban middle class. Cambridge: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Lockheed, Marlaine E. and Nicholas T. Longford(1991). School effects on mathematics achievement gain in Thailand." Stephen W. Raudenbush and J. Douglas Willms, eds. *Schools, classrooms, and pupils: International studies of schooling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pp. 131-148. San Diego: Academic Press
- Lucas, Samuel R.(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pp. 1642-1690
- Mare, Robert D.(1980). Social background and school continuation decision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5, pp. 295-305

- Mare, Robert D.(1981). Change and stability in educ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pp. 72-87
- Mare, Robert D.(1991). Fives decades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 15-32
- Mare, Robert D.(1993). Educational stratification on observed and unobserved components of family background. Y. Shavit and H-P. Blossfeld, eds.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pp. 351-76. Boulder, CO.: Westview Press
- McLanahan Sara and Gary D. Sandefur(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cer, Jacob(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rgan, Stephen L.(2012). Models of college entr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allenges of estimating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41(1), pp. 17-56
- Müller, Walter and Yossi Shavit(1998).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the stratification process: A comparative study of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s in thirteen countries.” Y. Shavit and W. Müller, ed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pp. 1-48. Oxford: Clarendon Press
- Müller, Walter, Susanne Steinmann, and Renate Ell(1998). Education and labor market entry in Germany.” Y. Shavit and W. Müller, ed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pp. 143-188. Oxford: Clarendon Press
- Müller, Walter and Maarten H. J. Wolbers(2003).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European union: Recent trends in qualification patterns. W.

- Müller and M. Gangl, eds.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The integration of youth into EU labour markets, pp. 23–6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01). Knowledge and skills for life: First result from PISA 2000.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 from PISA 2003.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07a). PISA 2006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s world.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07b). Jobs for youth: Korea.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10). PISA 2009 results: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2013).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ed.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Hyunjoon(2004).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among Korean m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0, pp. 227–253
- Park, Hyunjoon(2007a). South Korea: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for higher education.” Y. Shavit, R. Arum, and A. Gamoran, eds.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pp. 87–11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k, Hyunjoon(2007b).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Gender,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family 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 11(1–2), pp. 179–197

- Park, Hyunjoon(2013). Re-evaluating education in Japan and Korea: Demystifying stereotypes. Oxford: Routledge.
- Park, Hyunjoon(2014). Single parenthood and children's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H. Park and K. Kim, eds.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pp. 153-171. Singapore: Springer
- Park, Hyunjoon, Soo-yong Byun, and Kyung-keun Kim(201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cognitive outcomes in Korea: Focusing on private tutoring." *Sociology of education*, 84(1), pp. 3-22
- Park, Hyunjoon and Jeroen Smits(2005).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South Korea: Trends 1930-1998.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3, pp. 103-207.
- Park, Mee-Hae(1991). Patterns and trends of educational mating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 pp. 1-15
- Psacharopoulos, George and Harry Anthony Patrinos(2004).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A further update." *Education economics*, 12(2), pp. 111-134
- Riddell, Abby Rubin(1989).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school effectiveness in third world countri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3, pp. 481-497
- Roscigno, Vincent and James Ainsworth-Darnell(1999). Race,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resources: Persistent inequalities and achievement returns." *Sociology of education*, 72, pp. 158-178
- Ryoo, Jai-kyung, Young-sook Nam, and Martin Carnoy(1993). Changing rates of return to education over time: A Korean case stud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1), pp. 71-80
- Sandefur, Gary D. and Hyunjoon Park(2007).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s in occupational returns to education in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5, pp. 306-322

- Schindler, Steffen and Markus Lörz(2012). Mechanisms of social inequality development: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in the transition to tertiary education between 1976 and 2005.”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5), pp. 647-660
- Seth, Michael J.(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erer, Stefani(2005). Patterns of labour market entry—long wait or career instability? An empirical comparison of Italy, Great Britain,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 pp. 427-440
- Shavit, Yossi and Hans-Peter Blossfeld(1996). Equalizing educational opportunity: Do gender and class compete?” R. Erikson and J. O. Jonsson, eds. *Can education be equalized? : The Swedish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233-54. Boulder, CO.: Westview Press
- Shavit, Yossi and Walter Müller(1998).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Smits, Jeroen, Wout Ultee, and Jan Lammers(1998). Educational homogamy in 65 countries: An explanation of differences in openness using country-level explanatory variab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pp. 264-285
- Smits, Jeroen and Hyunjoon Park(2009). Five decades of educational assortative mating in 10 East Asian societies.” *Social forces*, 88(1), pp. 227-255
- Sorenson, Clark W.(1994). Success and education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1), pp. 10-35
- Sørensen, Aage B. and Stephen L. Morgan(2000). School effec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M. T. Hallinan, eds.

-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137-160. New York: Kluwer Academic
- Sørensen, Annemette(2006). Welfare states, family inequality, and equality of opportun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4(3), pp. 367-375
- Sui-Chu, Esther Ho and J. Douglas Willms(1996).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eighth-grade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69(2), pp. 126-141
- Thurow, Lester C.(1977). Educ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J. Karabel and A. H. Halsey, 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pp. 325-3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ltee, Wout C. and Ruud Luijkx(1990). Educational heterogamy and father-to-son occupational mobility in 23 industrial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6, pp. 125-49
- Uunk, Wilfred J. G., Harry B. G. Ganzeboom, and Peter Robert(1996). Bivariate and multivariate scaled association models: An application to homogamy of social origin and education in Hungary between 1930 and 1979." *Quality and quantity*, 30, pp. 323-343
- van Gennep, Arnold(1960/1992). *Rites of pass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ters, Pamela B.(1986). Sex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labor market effects o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1952 to 1980." *Sociology of education*, 59(2), pp. 199-211
- Welch, Finis(1974). Benefits of women's education within marriage: Com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pp. S72-S75
- Willis, Robert J.(1987). Wage determinants: A survey and reinterpretation of human capital earnings functions. O. Ashenfelter and R.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pp. 525-602. Amsterdam: North Holland

- Willms, Jon Douglas(2003). Ten hypotheses about socioeconomic gradients and community differences i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Report prepared for Canadia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policy, University of New Brunswick
- Willms, Jon Douglas(2006). Learning divides: Ten policy questions about the performance and equity of schools and schooling systems. Report prepared for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Wolbers, Maarten H. J.(2007). Patterns of labour market entry." *Acta sociologica*, 50, pp. 189-210.
- Woo, Haebong and In-jin Yoon(2010).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before and after the '97 Korean economic crisis: Macroeconomic context and differential impacts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6), pp. 87-109

## Abstract

# A Review on Women's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Korea :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Sang-soo Chang

This paper reviewed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which have been publish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Although these research can be classified into some detailed topics, this paper examined only the two education-related topics: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Each of these two topics includes two details respectively: the former is consisted of the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and of educational attainment, whereas the latter comprises both the return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occupational and monetary and the returns in the marriage market such as cultural and monetary. Summarizing the various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tried to show both the present status or level of inequality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he temporal change of it over the recent several decades. It found the following distinct trends; first,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or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deteriorated since the early 2000s. Second, all of the returns to educ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labor market returns or marriage market returns, have declined since the mid 1990s.

**Key words :** Key words: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turns to education,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inequality of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al returns to education, wage returns to education, marriage returns to women's education